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ABR)의 방법론적 탐구

이재정*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무용은 신체 움직임을 통해 감각과 정동, 관계를 생성하며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예술이다. 또한 무용은 움직임 기술(skill)의 수행을 통해 몸의 세계를 인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체화된 앎의 방식이다. 이에 무용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움직임 속에서 감각과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몸으로 사유하고 움직임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교육적 장’이다(Snowber, 2012). 그러한 점에서 최근에는 감각적 경험과 사회·정서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문화예술교육이 교육의 보조적 수단, 또는 부차적 활동이 아니라, 교육의 핵심적 실천 영역으로 재조명되고 있다(OECD, 2025).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용교육 역시 기능 중심의 표현활동을 넘어, 감각, 정동, 관계, 수행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실천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감각, 정동, 수행, 관계적 경험이 중심을 이루는 특성 때문에 무용교육 연구는 기존 연구방법론과의 충돌 문제를 발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존 무용 연구는 주로 언어 중심의 재현과 해석에 기반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의 자료를 주로 인터뷰, 관찰 기록, 설문 등의 언어적 중심으로 수집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의존해 온 것이다. 하지만 무용교육의 핵심 현상인 체화된 감각, 움직임의 미세한 차이, 정동적 흐름, 수행 속 관계 생성과 같은 경험은 이전의 연구방법과 같이 언어로 전환되는 순간 축소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Eisner, 1997). 이에 무용교육 연구에서 가지는 핵심 문제는 신체를 통해 사유하고 움직임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는 교육적 활동 속에서 연구 대상의 존재 방식과 연구방법의 인식 방식 사이에 불일치인 것이다.

그래서 Marco Pentassuglia(2017)는 무용 기반 연구가 본질적으로 비언어적이고 수행적인 차원을 탐구하게 되지만,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 질적연구를 넘어서는 방법론적 상상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하

* 진주교육대학교 조교수, smljj@cue.ac.kr

였다. Jill Green(2015) 또한, 무용연구에서 체성적 민감성(somatic sensitivity)과 반성성이 중요한 타당성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하며, 신체와 감각을 중심으로 한 탐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무용교육 연구가 기존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무용교육이 가지는 수행적·체화적·관계적 특성과의 정합적인 연구방법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새로운 학문적 인식 아래 예술기반 질적연구(Arts-Based Research, 이하 ABR)는 예술적 실천 자체를 자료 생성과 분석, 재현의 중심 구조로 활용하는 연구방법으로, 언어로 환원되기 어려운 예술적 경험의 질적 차원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Eisner(1997)는 예술적 형식이 기존 언어 중심 연구가 담아내지 못하는 경험의 질성과 복잡성을 드러내는 대안적 재현 방식(alternative forms of representation)임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Barone와 Eisner(2012), Leavy(2015, 2018)는 ABR을, 경험 자체를 생성하고 재구성하는 인식론적 연구방법론으로 정교화하였다. 이러한 ABR은 시각예술, 서사, 퍼포먼스, 움직임 등 다양한 예술적 형식을 통해 연구의 전 과정, 즉 문제의 형성부터 자료 생성, 분석, 해석, 재현을 재구성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이해되고 있다(Phoenix & Chamberlain, 2025).

이에 해외에서는 무용교육 맥락에서 ABR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Miriam Giguere(2015)는 무용교육 실행연구를 통해 수행 기반 탐구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Jill Green(2015)은 체성적 민감성과 반성성을 질적 무용연구의 핵심 타당성 기준으로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Wilson과 Moffett(2017)은 ABR이 춤의 지식, 사회정의, 교육 실천 사이를 연결하는 대화적 공간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으며, Dumaresq와 McFerran(2024)은 ABR이 연구자의 반성성과 새로운 이해의 ‘조명(illumination)’을 촉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ABR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강은영(2009), 하일(2025), 문영(2025), 정희정(2025), 신주영과 박혜연(2025)을 통해 예술기반 질적연구에 대한 논의와 적용 사례가 점차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무용교육 분야에서는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구조와 논리, 자료 생성과 분석 방식, 그리고 탐구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화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무용교육의 수행적·체화적·관계적 특성이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교육에서의 예술기반 질적연구를 방법론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첫째, 무용교육에서 ABR이 기존 질적연구와 구별되는 방법론적 특징을 규명하고, 둘째, 무용교육 맥락에서 ABR이 어떠한 탐구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연구에서 ABR의 특징과 무용교육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질적연구의 전통을 확장하면서 체화된 앎의 방식으로 무용교육 연구의 신체, 수행, 관계, 재구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적 탐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무용교육 연구방법론의 확장에 기초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예술기반연구는 인간의 경험을 언어로 환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하였다. 신체 움직임, 몸의 감각 등 예술 수행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의미는 기존의 언어 중심 연구방법론만

으로 충분히 포착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이는 기존 질적연구에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의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예술이 연구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생성하는 하나의 탐구 방식으로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예술기반연구의 생성 배경과 이론적인 계보를 살펴보고,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용교육에서 움직임과 수행, 이러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학문적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탐색하고자 한다.

1. 예술기반연구의 생성 배경과 이론적 계보

오늘날 연구 방법론적 전환은 지식을 객관적인 실재의 반영으로 이해하던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의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여,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현상학적 전통, 의미의 해석과 구성에 주목하는 해석학적 관점, 그리고 지식을 고정된 결과가 아닌 생성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후기구조주의적 사유로 확장됐다. 현상학은 신체와 감각을 통한 개인의 인식 구조를 강조하며 경험의 체화된 성격을 강조했고, 해석학은 경험이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해석을 통해 의미화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후기구조주의는 이러한 의미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철학적 흐름은 지식을 재현의 대상이 아닌, 생성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연구방법론 역시 경험을 기술하는 수준을 넘어, 경험을 생성하고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등장한 예술기반연구는 지식의 본질과 생성 방식을 재고하려는 인식론적 전환 속에서 형성된 연구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실증주의 연구에서는 지식을 객관적이며 실재의 반영으로 간주하며, 이를 설명하고 일반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교육학, 여성주의, 문화연구, 간호학, 예술교육 등에서 질적연구가 확산하면서 인간 경험에 대한 맥락성과 다층성을 드러내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연구에서도 여전히 언어, 텍스트 중심의 재현에 의존함으로써 실제 인간의 감각적, 정동적, 체화된 경험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Eisner, 1997).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ABR은 ‘예술’ 자체를 지식 생성의 중심 원리로 위치시키면서 기존 연구방법론의 경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은 Elliot W. Eisner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Eisner(1997)는 교육 연구에서 지식이 오직 명제적 언어로만 표현될 수 있다는 전제를 비판하며, 예술이 경험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대안적 표상 방식(alternative forms of representation)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예술이 연구의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인식적 장치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예술은 이미 존재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의미를 새롭게 생성하는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으로써 이는 지식을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적 산물로 이해하는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Eisner는 이러한 문제 제기 이후에 Tom Barone와 공동연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예술 탐구와 비평 중심의 연구방법론을 발전시켰다. Barone와 Eisner(2012)는 예술기반연구를 질적연구의 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만들면서, 예술적 탐구가 갖는 학문적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정교화하였다. 이들은

예술기반연구의 핵심을 경험의 ‘재현’이 아니라 ‘재구성’에 두며, 연구가 연구 참여자 및 독자에게 새로운 이해를 촉발하는 ‘환기(evocation)’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전통적 연구가 지향해 온 명확성, 재현 가능성 대신, 다의성, 해석 가능성, 미학적 설득력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의 타당성을 단일한 정답의 제시가 아니라, 독자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능력으로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Barone와 Eisner(2012)는 예술기반연구에서 텍스트와 예술적 형식이 단절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강조하였다. 이는 연구의 분석 결과가 텍스트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사, 이미지, 공연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의미를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즉, 질적연구가 가지고 있는 ‘설명 중심의 재현’을 넘어 경험을 다시 구성하고 재배치하는 창조적 실천으로서 연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후 ABR은 Patricia Leavy에 의해 실천적 차원에서 더욱 확장하게 되었다. Leavy(2015, 2018)는 예술기반연구를 특정한 형식에 한정하지 않고, 시적 탐구, 내러티브, 퍼포먼스, 시각예술, 혼합매체 등 다양한 장르로 구체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연구 설계 수준에서 예술적 접근을 적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예술기반연구를 ‘연구를 예술처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며, 연구 과정 자체를 창작적 실천으로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료 생성, 분석, 해석, 재현이 선형적으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과정 내내 동시에 진행되는 순환적, 통합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Leavy의 논의는 예술기반연구를 추상적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연구 설계로 연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예술기반연구는 참여자의 경험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연구 결과가 학문적 독자를 넘어 다양한 청중과 소통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는 연구를 폐쇄된 학문적 텍스트에서 벗어나, 사회적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Susan Finley는 예술기반연구를 비판적, 사회정의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며, 그 인식론적 함의를 더욱 확장하였다. Finley(2005, 2008)는 예술기반연구가 단순히 새로운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가 재생산해 온 권력의 구조와 지식의 위계를 해체하는 실천이라고 보았다. 특히, 예술기반연구가 참여자의 목소리와 경험을 중심에 두고, 연구 과정 자체를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Finley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예술기반연구가 ‘무엇을 아는가’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아는가’, ‘누가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함께 다룬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술기반연구는 지식 생산의 방식뿐 아니라, 지식 생산의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방법론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탈식민연구나 참여적 연구와 결합하면서, 예술기반연구를 사회적 변화를 지향하는 실천적 연구 패러다임으로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예술기반연구는 기존 연구방법론의 보완적 도구가 아닌, 지식의 생성, 표현, 해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식론적 전환의 산물로, 특히, 신체와 신체의 움직임, 감각, 수행과 관계가 핵심이 되는 무용교육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예술기반연구가 무용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론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핵심 개념과 방법론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예술을 연구 결과의 표현 수단이 아니라, 자료 생성과 해석, 재현의 전 과정에 작

동하는 방법론적 체계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기존 질적연구가 경험을 수집하고 이를 언어적 텍스트로 해석·재현하는 선형적 구조에 기반해 왔던 것과 구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 수행에 관한 연구가 ABR 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적 실천을 연구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는데, 대표적으로 Practice-Based Research, Practice-Led Research, Performance as Research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예술 실천을 연구의 핵심적인 요소로 본다는 측면에서 ABR과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연구에서 예술이 수행하는 역할과 지식이 생성되는 위치 및 연구로서의 접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Practice-Based Research는 예술작품 자체를 연구의 결과로 이해하는 접근이기에, 연구의 결과로서 예술작품이 제시된다(Frayling, 1994). Practice-Led Research는 완성된 작품 보다는 창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찰과 지식에 주목하면서 창작의 과정이 연구자에게 무엇을 이해하게 하였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다(Smith & Dean, 2009). Performance as Research는 공연이나 수행 자체를 중요시하는데, 이 관점에서 공연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인식론적 공간이 된다(Nelson, 2013). ABR은 이러한 예술실천을 기반으로하는 연구들과 문제의식을 같이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 ABR의 핵심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공연을 수행하는 것이 있기보다는 인간의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되고 이해되며, 재구성되는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ABR에서는 연구 결과의 형식이나 창작 과정에 머물지 않고, 자료 생성, 분석, 해석, 재현 전체의 과정에서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론적 매개로 활용되는 것이다(Barone & Eisner, 2012; Leavy, 2018). 무용교육에서는 작품을 만들고, 공연을 완성도 있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는다. 학습자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며, 의미를 생성해 가는 교육과정을 포함하며, 신체와 감각, 정동,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교육적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ABR에서는 연구가 단일한 분석 단계로 환원되지 않으며, 예술적 실천을 통해 자료가 생성되는 동시에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비선형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구조를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Barone & Eisner, 2012). 이러한 방법론적 전환은 ‘재현 중심 연구’에서 ‘생성 중심 연구’로의 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통적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경험을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텍스트 형태로 재현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ABR에서는 예술적 실천이 개입하는 순간, 그리고 자료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연구 자료로 기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움직임, 이미지, 퍼포먼스, 서사적 구성은 경험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경험을 재구성하고 변형하는 과정 자체가 되며, 이때의 분석은 별도의 단계가 아니라, 예술적 재구성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Leavy, 2015).

이렇게 연구방법론적으로 볼 때, ABR은 세 가지 핵심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자료 생성 방식의 확장이다. ABR에서는 인터뷰나 관찰과 같은 전통적 자료 수집 방법에 더하여, 예술적 실천 자체가 자료 생성의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는 자료가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연구 참여자를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 생산자로 본다. 이는 연구자가 설정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경험이 예술적 형식으로 드러나는 과정 자체를 연구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둘째, 분석 과정의 재구성이다. 기존 질적 연구에서 분석은 코딩, 범주화, 주제 도출과 같은 절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ABR에서는 이러한 분석 절차가 예술적 재구성 과정 속으로 통합된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퍼포먼스 기반 연구에서는 움직임의 구성, 반복, 변형, 리듬의 조절 등이 분석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적 탐구에서는 언어의 배열, 생략,

강조가 의미 해석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ABR에서 분석은 개념적 추상화가 아니라 형식적 구성(formal composition)을 통한 의미 조직화 과정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셋째, 재현 방식의 전환이다. ABR은 연구 결과를 단일한 설명적 텍스트로 제시하는 대신, 다양한 예술적 형식을 통해 다층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 결과가 하나의 해석으로 고정되는 것을 지양하고, 독자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Barone와 Eisner(2012)는 이러한 재현 방식을 통해 연구가 독자의 인식과 감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이해를 촉발하는 ‘환기(evocation)’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ABR의 재현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경험을 재구성하는 인식적 사건으로 작동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특징은 ABR이 새로운 표현 기법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무용교육에서 연구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ABR에서는 자료 생성, 분석, 재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이 세 과정이 상호 순환적으로 작동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연구를 결과 중심의 산출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탐구(practice-based inquiry)로 전환 시키며, 연구자가 분석자이자 창작자로서 동시에 개입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BR은 수행성(performativity)을 중요한 방법론적 기반으로 포함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ABR을 수행적 패러다임의 확장으로 이해하며, 지식은 텍스트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행위와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Boyd & Barry, 2024). 이때 연구는 결과를 보고하는 행위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퍼포먼스, 연극, 무용과 같은 형식에서는 연구의 대상, 방법, 결과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ABR의 방법론적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ABR은 체화된 인식(embodied knowing)을 방법론적으로 전제한다. 이는 지식이 언어적 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의 감각과 움직임을 통해 형성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전제는 연구 과정에서 신체적 경험을 단순한 보조적 자료가 아니라, 분석의 핵심 요소로 다루도록 요구한다. 즉, 연구자는 경험을 해석하는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신체적·감각적 참여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내부 참여자로 본다(Snowber, 2012). 이에 ABR은 무용교육에서 연구 방법론적으로 그 특징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연구방법론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data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질적내용분석은 텍스트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범주와 주제를 도출하는 해석적 분석방법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방법이다(Hsieh & Shannon, 2005; 최성호, 김영천, 2017). 또한 문헌연구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개념적 틀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도출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으로 이해된다(Denzin & Lincoln, 2005; Chilisa, 2020). 특히 본 연구와 같이 기존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방법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에서는 문헌 간의 비교, 해석, 재구성을 통해 이론적 통찰을 도출하는 과정이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정상원,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으로부터 개념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예술기반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핵심 문헌으로, Dewey(1934), Eisner(1997, 2008), Barone & Eisner(2012), Green(1995), Leavy(2018)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질적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대표적 문헌으로 Leavy(2015, 2020), McNiff(1998, 2018), Chilton & Leavy(2014), Bagley & Cancienne(2001), Ludecke(2016)을 선정하여, 기존 질적연구의 철학적 기반과 방법론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셋째, 무용 및 수행 기반 연구와 관련된 연구인, Snowber(2012), Kupperts(2014), 고현정(2023), 문영(2025), 정희정(2025), 장수혜, 장웅조(2026)를 수집하여, 무용 교육 연구의 특성과 방법론적 적용 양상을 검토하였으며, 추가로 국내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탐구 양상으로 강주희(2013), 서제희(2019), 김현이, 백지혜(2025), 하일(2025), 전선우, 김선아(2025), 김유나, 곽민정(2026)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자료는 연구 목적과의 적합성, 이론적 기여도, 그리고 무용교육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은 자료의 준비, 조직화, 결과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질적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Elo & Kyngäs, 2008), 각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비교, 범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념적 구조를 정교화하였다. 이는 질적연구의 해석적 전통에 기반하여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Denzin & Lincoln, 2018)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수집된 문헌을 정독하여 주요 개념과 탐구 양상을 분석하고, 예술기반 질적연구와 질적연구방법론의 핵심 구조를 탐구하였다. 둘째, 비판적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인식론적 가정과 방법론적 한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무용교육 연구에서 나타나는 언어 중심 재현의 문제와 수행적 경험의 축소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개념적 재구성을 통해 예술기반 질적연구와 무용교육의 접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용교육 연구에서 적용가능한 탐구영역을 이론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헌 간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개념 간 관계를 재구성하고, 기존 논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진실성을 위하여 저자 외에 추가로 1명이 무용교육 분야 질적연구자 그리고 질적연구방법론자 각 1명이 선정된 문헌들의 읽기와 분석 작업에 연구 보조자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서 문헌 선정의 적절성, 범주화 결과, 해석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무용교육의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 전개되며, 지식을 구성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집된 문헌을 반복적으로 읽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헌에 나타난 핵심 개념과 의미를 중심으로 개방적 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철학적 전제, 자료 생성 방식, 분석 구조, 재현 방식, 연구자의 역할과 관련된 개념을 추출하여 유사한 의미를 개념화하여 범주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생성성, 체화성, 수행성, 차이생성성, 관계성과 반영성이 반복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빈도수가 아닌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무용교육 연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식을 생성, 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방법론적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이 실제 연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창작 과정 중심 탐구, 수행 기반 탐구, 내러티브 기반 탐구라는 주요 탐구

양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징과 주요 탐구양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징

본 연구에서는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연구방법적 탐구를 기존 질적연구 및 예술기반 질적연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연구질문의 생성방식, 자료의 형성, 분석 과정, 의미의 구성과 지식의 생산, 그리고 연구자의 위치와 역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음 <표 1>과 같이 특징을 분석할 수 있었다. 무용교육 맥락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기존의 질적연구,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더 나아가 신체의 움직임과 감각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료가 형성되고, 수업의 과정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며, 지식의 생성은 움직임의 변화 속에서 생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지식의 생성이 연구자에 의한 도출이 아닌 학습자와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으로 구성되며, 연구자는 관찰자나 해석자를 넘어 실천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반영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지식의 생성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지니는 방법론적 특징을 생성성, 체화성, 수행성, 차이생성성, 관계성과 반영성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징

분석차원	기존 질적연구	예술기반 질적연구(ABR)	무용교육에서 ABR
연구질문	설정된 문제 중심	경험기반 생성적 질문	수업, 학습 상황 생성적 질문
자료생성	언어, 텍스트 중심	다중양식, 예술적 자료	신체 자체, 움직임, 감각, 정동
분석방식	코드화, 범주화	수행과 표현 중심 해석	수행과정 자체
의미구성	해석 중심 의미 도출	경험 재구성	움직임 변화 속 생성
지식생산	연구자 중심	공동 구성	상호작용+신체경험
연구자	관찰자, 해석자	참여자이면서 공동 생성자	자기성찰, 반영성

가. 새로운/생성적 연구현상과 질문의 탐구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전통적 연구가 지식을 발견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에 기반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넓게는 Lather & St. Pierre(2013)가 개념화한 포스트 질적연구에서 새로운 질적연구자들이 기존과는 다른 연구질문과 방법을 탐구할 것을 제안한 주장 역시 본 연구의 이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무용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이러한 특징은 예술기반 질적연구를 “예술 창작을 통해 탐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의한 McNiff(1998, 2018)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McNiff는 예술적 실천이 단순한 표현의 행위가 아니라 질문을 생성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탐구 행위임을 강조한다. 이는 연구과정과 예술 창작의 과정이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Leavy(2018)는 예술기반 질적연구를 자료 생성, 분석,

재현이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상호 순환적이고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연구가 선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해석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확장되는 생성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연구는 사전에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 아니라, 예술적 실천을 통해서 질문이 형성되고 의미가 생성되는 생성적인 탐구의 구조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용교육에서 표현활동 시 고정된 의미를 재현하는 활동이 아닌, 움직임을 통해 의미를 탐색하고 구성하는 과정적 실천으로 이해되기 때문(Snowber, 2012; 이재정, 2024)이며, 학습자는 움직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드러내고 이를 변형,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Dewey(1934)의 행위와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경험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무용교육의 표현활동은 경험을 생성하는 실천적 학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이러한 무용교육의 표현활동이 지니는 탐색-변형-구성 순환적인 학습 구조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용교육에 예술기반 질적연구방법론은 이러한 학습의 내부에 존재하는 생성적 탐구 구조를 이론적으로 가시화하고 정교화하는 접근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생성적 탐구의 구조는 국내 무용교육 및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다양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용경험을 인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식 작용의 자체로 이해하고 있는 한혜리(2019)의 연구는, 무용이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화된 경험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무용경험은 주체적 참여를 통해 감각, 기억,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학습자는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외부에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다는 점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생성적 질문 구조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용 실기기반 연구를 다룬 고현정(2023)은 무용 실천이 표현활동을 넘어 지식 생성의 핵심 장으로 기능함을 밝히면서 실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각적 경험과 성찰이 새로운 연구문제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무용 실기는 언어로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암묵적인 지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연구자가 기존의 질문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탐구적 장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말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는 McNiff가 주장한 예술적 실천으로서의 탐구 개념을 무용교육 맥락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체화인지 관점에서 무용교육을 분석한 홍혜전(202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무용학습이 신체와 환경,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밝히면서 동일한 학습 환경에서도 학습자의 감각적 상태와 경험에 따라서 다른 의미와 이해가 생성된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학습과 탐구가 사전에 설계된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의 경험 속에서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생성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이다. 이에 예술기반 질적연구와 무용교육에서의 표현활동은 모두 경험-감각-수행-해석의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현상과 질문이 동시에 생성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서 연구는 연구의 현상과 질문이 동시에 생성되는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용교육 연구가 고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의미가 발생하고 그 의미가 다시 질문을 생성하는 순환적이고 창발적인 탐구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용교육에 예술기반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방법을 도입해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무용교육의 표현활동 내부에서 이미 존재하는 생성적 탐구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는 작업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분석의 결과 문헌을 통해서 분석된 핵심 요소인 생성성은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를 특징짓는 핵심적인 방법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체화된 인식과 감각/신체 중심의 자료 생성

두 번째 특징은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인간 경험을 언어적 재현의 대상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신체와 감각을 통해서 형성되는 체화된 인식을 지식 생성의 핵심 범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적 실천을 통해서 탐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제시한 McNiff(1998, 2018)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많은 질적연구들이 인간의 언어를 중심으로 그들의 경험이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특징과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최근의 포스트 휴먼 질적연구의 새로운 탐구(Barad, Braidotti, Massumi)를 제외한다면 기존의 그 어떤 질적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의 몸이나 동작과 관련한 질적 자료들을 수집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아 왔다. 그러한 점에서 무용기반 예술적 질적연구는 인간이 말이나 일반적인 대화 또는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들 대신에 인간의 몸과 동작과 관련한 다양한 현상, 자료, 경험과 기록들을 중심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몸과 물질, 테크놀로지 등을 새로운 연구 주제와 자료로 탐구하고자 하는 신물질주의 기반 포스트 질적연구의 연구방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St. Pierre, 2011; Fullagar, 2017).

이러한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예술적 형식을 활용하여 경험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언어 중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언어중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넘어서는 방법론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Phoenix와 Chamberlain(2025)의 연구에서처럼 시각 예술, 문학,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경험을 포착하며, 연구의 전 단계-문제 설정, 자료 생성, 분석, 결과 제시-에 걸쳐 작동된다. 이러한 논의는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자료는 사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예술적 실천 과정 속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체화된 인식에 대한 강조는 무용관련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움직임 수행기반 연구에서는 인간의 경험이 사고와 감정, 신체가 통합된 전체적 차원에서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며, 퍼포먼스는 이런 경험을 탐구하는 동시에 발현시키는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Ludecke, 2016).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자료는 인터뷰, 텍스트와 같은 언어적 형식이 아닌, 신체적 움직임, 감각, 정동, 퍼포먼스 등의 체화된 경험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무용교육에서 신체 움직임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표현활동을 이해하고 학습자는 움직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각과 정동을 인식하고 이를 조정하면서 경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각과 정동을 인식하고 조정하면서 경험을 형성하게 된다는 체화된 인식의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즉흥(improvisation), 안무 과정, 신체 움직임, 퍼포먼스 등은 무용교육에서 중요한 학습 활동이자 연구 자료로 기능하는데, 이는 학습자의 경험이 신체를 통해 외현화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학습자의 인식 구조와 의미 형성의 과정을 탐구할 수 있다. 이는 체화된 인식과 신체 움직임 중심의 자료 생성이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지니는 핵심적인 방법론적 특징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무용교육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지식의 주변적 요소가 아니라 중심적 요소로 재위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된 체화성은 신체와 감각, 이를 지식 생성의 중심으로 이해하는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적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다. 수행성과 현전성 기반의 분석 방식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분석은 기존 질적연구에서와 같이 자료를 분해하고 범주화하는 절차적 과정이 아니라, 수행과 경험의 현전성(presence)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는 예술적 실천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경험을 형성하고 해석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수행 기반 연구에서는 퍼포먼스를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본다. Ludecke(2016)는 수행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 자체가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며, 창작과 수행 과정이 곧 자료 해석의 과정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수행 과정속에서 경험이 재구성되는 실천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Barone와 Eisner(2012)는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분석과 재현이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예술적 형식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또한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경험을 설명하기 보다는 이를 보는 관객이 다시 그 경험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의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질적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과거의 기록이나 대화 또는 심층면담이나 참여관찰에 기초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접근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분석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행성과 현전성에 기반한 분석의 방식은 국내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은지(2026)의 연구에서는 걷기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감각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재경험하는 가운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경험의 반복적 수행 속에서 자료의 분석, 렌더링(rendering)이 선형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순환적으로 얹혀 작동하며, 과정적·수행적 실천으로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은 객관적 데이터에 대한 외재적 해석이 아니라, 경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현전적 행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현정(2023)의 실기기반 연구에서도 무용 실기가 언어로 환원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은 실기 수행 과정 자체에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연구자는 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각, 정동, 움직임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변형하는 가운데 의미를 구성하며, 이 과정이 곧 분석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 역시 텍스트 중심의 해석 절차 분석이 아니라, 신체를 매개로 한 반복적 수행과 재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화된 해석 과정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혜리(2019) 역시 무용을 자기성찰의 구조로 이해하며 무용 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내면과 감각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자기 이해가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이때의 분석은 수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외재적 해석이 아닌, 수행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인식과 의미 구성의 내재적 과정으로 작동한다고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헌분석을 통해,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분석은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가 아닌 수행을 통해 경험을 다시 조직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서가 아니라, 수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생성적 실천으로 이해되었다. 무용교육에서 표현 활동은 수행 자체를 통해서 의미가 생성되는 구조를 가지는데, 학습자의 움직임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수행성과 현전성은 결과 도출을 위한 단계가 아닌 경험을 생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수행성이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핵심적인 분석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라. 실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몸과 동작의 새로운 의미의 규명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신체와 움직임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의미가 생성되는 실천적 장으로 이해된다.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에서 신체는 세계를 지각하고 관계 맺는 몸-주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무용의 움직임은 외부 형식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와 접촉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지각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들뢰즈의 생성 철학에서도 신체, 몸은 고정된 기관들의 합이 아니라, 다양한 강도와 가능성이 잠재된 생성의 장으로 이해된다. 특히, 기관 없는 몸의 개념은 신체가 이미 완성된 기능체가 아니라, 움직임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조직되는 잠재적 구조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무용교육에서도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하는 것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감각, 정동, 공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차이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이재정, 2024).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신체는 기계적 반복을 수행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연결하고 새로운 움직임과 의미를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에 무용교육의 표현활동은 신체 동작을 통해서 고정된 의미를 재현하는 활동이 아닌, 움직임의 변형과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는 차이생성적 탐구과정이다.

이에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재현은 더 이상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객관적 기술의 과정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통해 경험을 재구성하고 확장하는 과정임을 앞선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재현을 단순한 전달의 문제가 아닌, 의미를 생성하는 인식론적 실천의 장이라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one와 Eisner(2012)는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재현이 “현실의 복제가 아니라 경험을 재구성하는 미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보았으며, 재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선택과 강조, 생략이 개입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ambiguous and open-ended meanings”를 지향한다고 보며, 연구의 결과를 독자의 해석을 통해 확장되는 구조로 설명한다. 이는 재현이 해석적 구성임을 전제한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Richardson(2000)은 질적연구에서 글쓰기 자체를 하나의 탐구 행위로 보면서, 재현을 ‘단일한 진실의 반영이 아니라 다층적 의미가 교차하는 결정화’로 개념화하였다. 이때의 재현은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동시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종합해서 분석해 볼 때,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재현은 ‘경험의 전달’이 아닌 ‘경험의 번역’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번역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변형적 과정이며, 무용교육에서는 이러한 번역적 재현이 중요한 의미로 작용한다.

Snowber(2012), Kupperts(2014), 고현정(2023), 문영(2025), 정희정(2025) 등의 연구에서도 몸과 움직임은 연구대상을 넘어 의미생성의 매개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신체 움직임의 의미는 연구 이후에 생성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몸과 동작은 참여자의 경험과 감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새로운 이해를 생성하는 탐구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용교육에서 신체 움직임을 통해 생성된 활동을 공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이미지, 영상, 서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용교육의 활동 과정에서 움직임은 단순히 기록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다. 특히, 같은 움직임이라도 이를 어떤 형식으로 재현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움직임을 서사로 구성할 경우 시간적 맥락이 강조되고,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될 경우 감각적 요소가 더 발현된다. 이는 재현의 의미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생성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의 과정은 학습자의 신체적 차이와 경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용교육에서는 동일한 동작이지만 학습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감각,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수행되며, 이것은 각각의 움직임이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재현 과정에서 더욱 확장되며,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듯 다층적 재현과 번역적 의미 구성은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지니는 중요한 방법론적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재현을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고 확장하는 과정’으로 전환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참여/실천 경험을 통한 관계적 지식생산

기존의 양적연구 및 일반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지식생산을 위한 자료 제공자 혹은 관찰 대상의 위치에 머무른다면,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참여자는 지식 생성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실천적 주체로 전환된다. 연구자, 학습자, 안무가 등은 무용 활동과 창작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감각과 정동, 관계 경험을 공유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와 변화를 생성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촉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의 목표를 넘어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용 프로그램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며 새로운 결과를 양산하게 된다. 즉,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 관계적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결과가 발생하는 생성적 과정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지식은 개별 주체의 인지적 활동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전통적 연구에서 지식을 객관적인 사실의 축적으로 간주하는 입장과는 다르게, 지식이 경험과 관계, 활동의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McNiff(2018)는 예술기반 질적연구를 ‘혼자 또는 타자와 함께 예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탐구’로 정의하면서, 예술적 실천이 근본적으로 관계적 활동임을 강조하였다. 지식이 개인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특징을 지닌다. Phoenix와 Chamberlain(2025)는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연구 참여를 촉진하고 권력 관계를 완화하며,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의미를 구성하는 구조를 형성한다고 설명하며, 연구에서 지식이 일방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생성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는 수행예술, 참여적 예술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Bishop(2012)은 참여적 예술에서 작품이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구성하는 과정으로 전환되며, 관객 역시 의미 생성의 주체로 참여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지식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창작과 공연, 공동 성찰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형성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현정, 2023; 문영, 2025; 정희정 2025; 장수혜, 장웅조, 2026). 강주희(2013), 서제희(2019), 김현이와 백지혜(2025), 하일(2025)의 연구에서도 예술창작과 수행의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타인의 경험과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양상이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지식은 개별적 인식의 결과가 아닌, 연구자-참여자-관객 간의 관계적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식이 특정한 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용교육에서 관계적 지식의 생성 구조는 움직임이 개인의 내적 표

현에 머무르지 않고, 타자의 움직임과 반응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의미를 형성해간다. 학습자는 자신의 신체 경험을 인식하는 동시에,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를 조정하고 재구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의미는 관계적으로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교수-학습 관계를 넘어서 공동의 탐구 관계로 기능한다. 움직임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장으로 작동한다. 무용교육에서의 앎은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실천적 앎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관계적 상호작용 기반의 지식 생성은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지니는 방법론적 특징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지식을 ‘개별적 인식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과정적 실천’으로 재개념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바. 자기 성찰적 연구지식

무용교육 및 무용 프로그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자는 기존의 질적연구와는 다르게 연구현장에서 관찰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안무가로, 교육자로, 혹은 무용단원, 수행자로 실천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질적연구자가 연구의 대상을 외부에서 해석하는 위치를 넘어, 연구현상을 내부에서 경험하는 존재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기존의 질적연구에서도 연구자의 현장 개입이 인정되지만, 주로 관찰자나 해석자의 역할로 제한된다는 점에 비해 무용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 수행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연구현상을 체화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위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구자의 위치적 전환은 기존 질적연구에서의 자기성찰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Lather(1986)가 제시한 반영적 실천으로서 자기 성찰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이었다면, Cho & Trent(2006)는 더 나아가 타당성을 고정된 기준이 아닌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순환적이고 과정적인 개념으로 재정의하였다.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경험 자체가 지식의 생성과정의 일부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확장된 성찰 구조를 요구한다. 특히,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참여자로서 경험하는 과정은 연구결과의 형성과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연구의 결과가 분석의 산출물이 아니라 실천 과정이며 끊임없이 재검토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이에 전통적인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관찰자(observer) 또는 해석자(interpreter)의 역할이었다면,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실천에 참여하는 존재로 전환되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외부적 주체가 아니라, 예술적 실천 과정에 개입하여 의미 생성에 직접 관여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전제하기 보다는 연구자가 지식 생성 과정에 필연적으로 관여하는 존재이다.

Phoenix와 Chamberlain(2025)은 연구자가 참여자와 함께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의 권력 관계를 재구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연구자의 역할이 자료를 해석하는 주체에서 관계적 의미 생성에 참여하는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Ludecke(2016)는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연구자의 개인적 서명과 해석이 연구의 구성 요소로 작동하며, 이는 경험을 풍부하게 재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연구자의 주관성을 제거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 의미 생성의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되었다. 강주희(2013), 서재희(2019), 김현이와 백지혜(2025), 하일(2025)의 연구에서도 예술적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감정, 인식의 변화를 탐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연구자는 반성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자기반영성(reflexivity)은 연구의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Cho & Trent(2006), 조재식, 김영천, 허창수(2006)의 연구와 같이 반영성은 연구자가 자신의 위치, 경험, 해석이 연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으로, 이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감각적 경험과 정동적 반응이 분석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영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연구자의 위치는 외부적 관찰자에서 관계적 참여자로, 반영성은 연구과정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작동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용교육에서 이러한 위치성의 전환은 연구자가 수업과 수행 과정에 참여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존재로 기능하며, 신체 기반의 표현활동에서는 연구자의 감각과 반응이 경험 이해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연구자가 분석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자의 위치성의 전환과 반영성은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지니는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연구자를 ‘관계적 실천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참여자’로 재개념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요즘 포스트 모던·해체적 질적연구의 영향으로 자기 성찰 탐구는 많은 질적 연구 적용 학문 분야에서 연구자가 고려하는 주요 연구 전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Lather, 1986; Pillow, 2003; Denzin & Lincoln, 2018).

2.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탐구 양상

본 연구는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를 고정된 유형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실제 탐구가 이루어지는 중심적인 위치와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탐구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선형적 단계나 배타적인 유형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생성과 수행, 재구성이 상호 중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분석의 결과는 첫째, 창작과정 중심 탐구양상, 둘째, 수행 중심 탐구 양상, 셋째, 내러티브 기반 탐구 양상으로 실제 연구의 과정에서 중첩되고 순환적으로 작동하는 관계적 구조로 이해 될 수 있었다.

〈표 2〉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탐구 양상

탐구 양상	중심 맥락	특징	의미
창작 과정 중심	수업 및 학습 과정	생성, 즉흥, 안무과정 속에서 질문과 의미 형성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탐구
수행 중심	공연 및 현전성	수행, 관계성,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 생성	공연과 감상, 참여 속에서 의미 생성
내러티브 기반	재구성 및 표현 과정	이야기화, 전환, 재해석을 통한 의미 구성	움직임 경험의 글, 이미지, 영상 등으로 재구성하여 확장

가. 창작 과정 중심 탐구

예술적 질적연구 기반 무용교육의 첫 번째 탐구 양상은 예술 창작 과정 중심의 탐구였다. 이는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예술 창작의 과정 자체를 탐구 중심의 구조로 활용하는 유형으로 예술 창작

중심 탐구 양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예술을 연구의 결과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연구의 전 과정-자료수집, 생성, 분석, 결과 도출-을 예술의 창작과 동일한 맥락에서 수행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접근은 McNiff(2018)의 논의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McNiff는 예술기반 질적 연구를 ‘예술 창작을 통해 탐구가 이루어지는 연구’로 정의하며, 창작 과정 자체가 질문을 생성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적 탐구 행위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외부적 관찰자가 아니라, 창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존재인 것이다. Leavy(2018) 또한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예술적 실천을 포함하는 통합적 방법론임을 강조하며, 자료 생성, 분석, 재현이 서로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상호 순환적이고 생성적인 과정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 창작은 표현을 넘어 자료를 생성하고 해석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조직하는 복합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국내외 연구에서 이러한 창작 과정 중심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McNiff(1998)과 Sullivan(2005)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창작을 지식 생성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ahnmann-Taylor & Siegesmund(2008)는 창작 과정이 자료 생성, 분석, 표현이 통합된 연구 구조로 작동함을 강조하였다. 강주희(2013)은 비주얼 저널을 통해 예술 제작 과정이 학습자의 의미 형성과 성찰을 촉진하는 탐구 과정임을 제시하였고, 서제희(2019)의 연구에서도 시각적 창작 과정이 연구문제의 탐색과 해석의 중심 구조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수진(2021)은 예비교사의 ‘되어감’의 과정을 예술적 창작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창작 과정 자체가 정체성의 형성과 의미 생성의 장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창작과정 중심 탐구 양상은 생성-탐색-구성의 과정 속에서 지식이 형성되는 탐구 구조로 이해될 수 있으며, 무용교육에서는 즉흥, 안무, 신체 표현활동과 같은 수업에서 움직임의 과정 자체가 탐구의 장으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방법론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창작 과정 중심의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갖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생성 단계에서의 창작 중심성이다. 이 단계에서 자료는 인터뷰나 설문과 같은 언어적 형식이 아니라, 즉흥(improvisation), 안무 과정, 신체 움직임,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생성된다. 여기서 움직임 자체는 연구의 자료로 기능하며, 이것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이다. 둘째, 분석 과정에서의 재구성이다.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분석은 기존 자료를 범주화하고 분해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창작의 과정을 통해 경험을 다시 구성하고 의미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자는 움직임의 공간, 시간, 리듬 등의 움직임 요소를 재조직함으로써 경험의 구조를 드러내게 된다. 셋째, 결과 단계에서의 수행적 재현이다. 전통적 연구에서 결과는 텍스트 형태로 제시되는 반면, 예술 창작 중심 탐구 양상에서는 공연, 영상, 서사적 구성 등의 방식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연구의 결과가 설명이나 결론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다시 체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독자가 경험에 참여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용교육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화되는데, 무용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표현적 활동이기 때문이며,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예술 창작 중심 탐구 양상은 무용교육의 본질적인 특성과 결합해서 모호성과 다의성을 연구의 한계가 아니라 인식론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창작 중심 탐구 양상은 무용교육의 표현활동이 지니는 수행성과 생산성을 연구방법론적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술 창작 중심 탐구 양

상은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단순한 방법론적 선택이 아니라, 무용교육의 본질적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필연적 접근임을 알 수 있었다.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언어 중심의 해석을 넘어, 신체와 감각, 수행을 중심으로 한 지식 생성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나. 수행 기반 탐구

두 번째 탐구 양상은 수행(performance)자체를 탐구의 핵심 장으로 활용하는 수행/퍼포먼스 기반 탐구로 구분된다. 이는 예술 창작 중심의 탐구 양상이 창작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수행 행위가 지니는 현전성(presence)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경험을 생성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수행이 결과 제시의 방식이 아니라, 연구 과정과 결과가 동시에 실현되는 인식론적 장이라는 점에 기반한다. 수행은 인간의 사고, 감정, 신체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의 형식이며, 이를 통해서 연구자는 경험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발생하는 순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다시 말해, 수행은 연구를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Denzin(2003)은 수행 민족지학을 통해 퍼포먼스를 연구 수행의 핵심 방법으로 제시하며, 연구 결과가 텍스트가 아닌 수행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Barone & Eisner(2012)는 예술기반 연구에서 분석과 재현이 분리된 단계가 아닌 예술적 표현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수행 자체가 해석의 방식으로 기능함을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Denzin(2003)도 수행을 재현의 방식이 아닌 경험과 의미가 생성되는 실천의 장으로 보았으며, 이는 수행적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도 김현이, 백지혜(2025)의 연구를 통해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유아교육 맥락에서 행위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임을 발표하였으며, 고현정(2023)은 무용교육에서 수행이 개인의 표현을 넘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수행되는 실천적 구조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에서 수행 및 퍼포먼스 기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수행을 자료 재현의 방식이 아닌,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신체적, 정동적으로 재구성하여 관객과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무용교육의 맥락에서 이러한 수행/퍼포먼스 기반 탐구의 탐구 양상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수행 과정에서 경험의 생성이다. 이 탐구 양상에서 수행은 이미 형성된 의미의 전달이 아니라 과정에서 의미가 새롭게 발생하는 장으로 작동한다. 학습자는 움직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감각과 정동을 인식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조율하면서 경험을 생성하게 된다. 둘째, 수행을 통한 관계적 상호작용이다. 수행은 개인의 표현을 넘어서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완성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탐구 양상에서는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행자와 관객 간의 관계가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수행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셋째, 수행적 재현을 통한 의미의 확장이다. 수행/퍼포먼스 기반 탐구 양상에서는 연구 결과가 텍스트나 설명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공연, 영상 등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방식은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관객이 직접 경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는 수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열린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참여적 예술 활동 또는 공연예술 연구에서 제시되는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퍼포먼스는 예술에서 참여자와 관객이 일방적 수용자로서가 아니라 생성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전통적 연구에서 연구자-참여자-관객 간의 위계를 해체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무용교육에서 수행/퍼포먼스 기반 탐구 양상은 무용이라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수행예술, 학습과 연구가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런 무용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퍼포먼스는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탐구와 의미 생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예술기반 질적연구를 통해 경험을 분석하는 방법에 경험을 생성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용교육 연구가 텍스트 중심의 해석을 넘어 수행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예술기반 질적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 내러티브 기반 탐구

셋째 탐구 양상은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또 다른 탐구 양상은 내러티브와 시각적 형식을 통해 재구성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내러티브-시각예술 기반 탐구 양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술 창작 중심 탐구 양상이 창작 과정 자체에, 수행/퍼포먼스 기반 탐구 양상이 수행의 현전성과 관계성에 초점을 둔다면, 경험을 다양한 형식으로 번역(translation)하고 재현(re-presentation)하는 데 주목하는 접근이다.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내러티브와 시각예술은 단순한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경험을 조직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인식론적 도구로 이해된다. 내러티브는 경험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재구성하는 방식이며, 시각예술은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감각적이며 정동적 차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두가지의 형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경험을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질적연구의 글쓰기에서 논의되는 ‘글쓰기 자체가 탐구’라는 관점과 연결하면, 내러티브-시각예술 기반 탐구 양상은 경험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와 이미지 생성의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구성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의 결과가 고정된 사실의 전달이 아니고, 해석과 재구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는 Richardson(2000)의 연구에서 글쓰기를 하나의 탐구방법으로 보며, 서사적 구성 과정 속에서 지식이 형성된다고 주장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eavy(2015)는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 다양한 표현 형식이 경험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Clandinin & Connelly(2000) 또한 인간 경험이 시간성, 사회성, 장소성 속에서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의미가 형성됨을 설명하여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방법론적인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다. 하일(2025)은 만화소설 형식의 연구를 통해서 경험을 서사와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탐구하였으며, 전선우, 김선아(2025)는 자전적 예술기반 질적연구를 통해서 감정 경험을 예술적 표현과 글쓰기를 통해 서사화하였다. 또한 김유나, 곽민정(2026)은 반응작업과 내러티브 탐구를 결합하여 경험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재배열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제시하면서 단순한 표현을 넘어 경험을 이야기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생성되는 탐구구조로서의 연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현정(2023)의 연구에서와 같이 무용교육에서 내러티브-시각예술 기반 탐구 양상은 움직임을 경험을 다양한 형식으로 전환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낸다. 무용이라는 학습 경험은 신체(body)을 통해서 생성되지만, 이것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언어, 이미지, 영상, 서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경험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변형된다. 이러한 무용교육에서 내러티브기반 탐구 양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경험의 내러티브화이다. 학습자의 움직임 경험은 이야기 형태로 재구성되며, 이것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의미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때 내러티브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경험의 맥락과 정동을 드러내는 해석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둘째, 시각적 재현을 통한 의미의 확장이다. 움직임은 영상, 이미지, 드로잉 등의 다양한 시각적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는 언어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감각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시각적 재현은 경험을 고정시키기보다는,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이다. 셋째, 경험의 번역적 재구성이다. 내러티브와 시각예술은 움직임 경험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재현을 넘어 의미를 재구성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번역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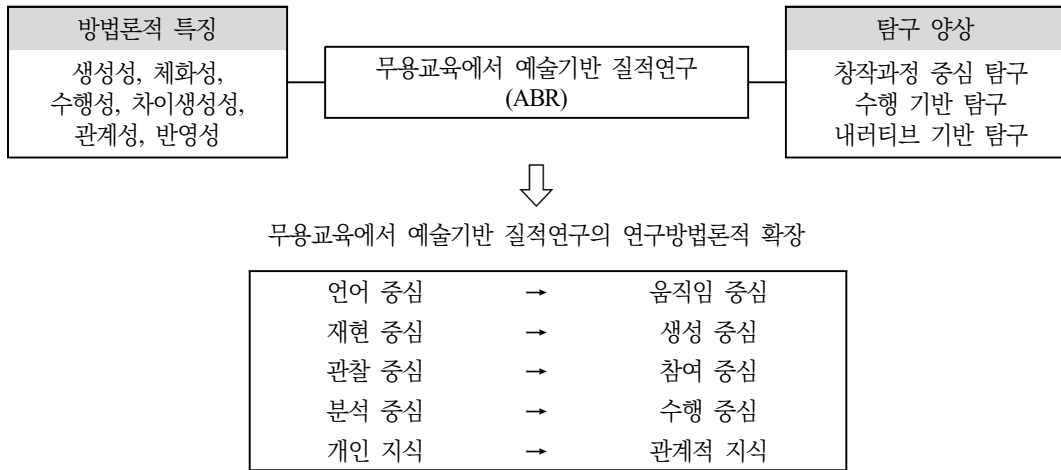
이러한 특성은 예술기반 질적연구에서의 다성성(polyphony)과 다층적 재현 방식과도 연결된다. 경험은 단일한 시선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통해서 재구성되며, 연구의 결과가 하나의 결론이 아닌 열린 해석의 장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무용교육에서 이는 ‘움직임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움직임이라도 학습자의 신체적 특성, 경험, 감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며, 이를 다양한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무용교육에서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요소가 된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러티브-시각예술 기반 탐구 양상은 무용교육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확장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무용교육 연구가 신체의 경험을 언어와 이미지, 서사로 연결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으로 발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에 대한 학문적·개념적·이론적 탐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무용교육 맥락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무용교육에서 나타나는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을 규명하였으며, 둘째, 무용교육자와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탐구 양상을 개념적으로 재구성하고자 국내외 관련 문헌과 연구들을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핵심 개념과 구조를 도출하고, 그 의미를 이론적으로 정교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질적연구의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확장되고 있는 국제적 동향에 기초하여 무용·무용교육 연구에서 그러한 예술기반 탐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에서 최근에 무용·스포츠·체육 등의 몸과 움직임과 관련한 질적연구-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새로운 연구주제로 등장하고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방법적 지식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서구와 국내의 예술기반 질적연구에 대한 문헌분석과 문서 분석을 한 결과, 크게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을 생성성, 체화성, 수행성, 차이생성성, 관계성 및 반영성의 6개 영역으로 개념화하였으며, 둘째 그러한 개념화에 기초하여 무용교육 탐구 분야에 그러한 예술기반 질적연구가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를 창작과정 중심 탐구, 수행 기반 탐구, 내러티브 탐구의 3개 영역으로 규명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법

으로서 연구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연구방법론적 확장



본 연구는 무용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징과 탐구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무용교육 연구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 추후 더욱 섬세하고 심도 있는 무용교육 예술기반 질적연구들에 대한 이론적·방법적·실천적 지식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 설계와 분석 절차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술기반 질적연구 방법들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주로 서구 중심의 방법론적 수용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무용교육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맥락을 반영한 토착적 연구방법론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많은 학문 분야의 질적연구와 달리 무용교육의 질적연구는 실천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다 새로운 질적연구방법 탐구와 개척을 위해서는 무용·무용교육 전문가들에 대한 현장연계 연구와 생애사 연구, 작품 분석과 자문화기술지, 역사 연구와 탈식민적 탐구의 새로운 방법론적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포스트질적연구, 신물질주의, 포스트휴먼 연구의 확산은 무용교육 연구가 신체, 물질, 공간, 기술, 그리고 정동의 다양한 요소를 새로운 연구의 주제와 자료로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미래 무용교육연구는 언어 중심의 질적연구를 넘어, 움직임, 감각과 수행, 디지털 기술을 포함하는 보다 확장된 연구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예술기반 질적연구는 이러한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Barone, T., & Eisner, E. W. (2012). *Arts based research*. Sage.
- Bishop, C. (2012).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Verso.
- Chilisa, B. (2020). *Indigenous research methodologies* (2nd ed.). Sage.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Jossey-Bass.
-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enzin, N. K., & Lincoln, Y. S. (2018).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5th ed.). Sage.
-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Minton, Balch & Company.
- Greene, M. (1995). *Releasing the imagination: Essays on education, the arts, and social change*. Jossey-Bass.
- Kuppers, P. (2014). *Studying disability arts and culture: An introduction*. Palgrave Macmillan.
- Leavy, P. (2015). *Method meets art: Arts-based research practice* (2nd ed.). Guilford Press.
- Leavy, P. (2018). *Handbook of arts-based research*. Guilford Press.
- Leavy, P. (2020). *Method meets art: Arts-based research practice* (3rd ed.). Guilford Press.
- McNiff, S. (1998). *Art-based research*.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Merleau-Ponty, M. (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Routledge.
- Nelson, R. (2013). *Practice as research in the arts: Principles, protocols, pedagogies, resistances*. Palgrave Macmillan.
- Schechner, R. (2002). *Performance studies: An introduction*. Routledge.
- Smith, H., & Dean, R. T. (Eds.). (2009). *Practice-led research, research-led practice in the creative arts*. Edinburgh University Press.
- Sullivan, G. (2005). *Art practice as research: Inquiry in the visual arts*. Sage.
- 강은영(2009). 예술기반 교육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예술교육연구*, 7(1), 45-59.
- 고현정(2023). 무용교육의 초 관계짓기와 공존의 실천 구조.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4(2), 5-15.
- 김수진(2021). 미술을 가르치는 초등 교사-되기: 예비 교사와 함께하는 예술 기반 연구. *조형교육*, 79, 25-51.
- 김유나, 광민정(2026). 초심 예술치료사의 변아웃 회복과 자기돌봄을 위한 반응작업 경험에 대한 예술기반 내러티브 탐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6(1), 26-45.
- 김영천, 정상원(2015).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문서분석. *교육문화연구*, 21(6), 253-285.
- 김현이, 백지혜(2025). 유아교육에서 예술기반 질적연구(Arts-Based Research)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유아교육연구*, 27(2), 162-189.
- 문영(2025). 대학 교양교육 혁신의 대안: 무용예술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3(2).
- 박민경, 주영광(2025). 기혼 여성성악가의 연대적 공연 경험에 관한 예술기반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

- 양자역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융합연구**, 6(4), 21-48.
- 서제희(2019). 예술기반 탐구방법을 활용한 미술 중심의 융합 수업에 관한 실험연구. **미술과 교육**, 20(2), 93-107.
- 신주영, 박혜연(2025). 국내 무용학 질적연구의 현황 및 특성 탐색: 주요 질적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25(1), 89-102.
- 이미정(2017). 예술기반 연구방법에서 바라보는 예술의 가치. **미술교육연구논총**, 50, 47-72.
- 이은지(2026). 예술기반 연구방법으로서 걷기 (walking) 에 대한 고찰: 인식론적 토대와 지식 생성 과정을 중심으로. **미술과 교육**, 27(1), 179-206.
- 이재정(2024). **들뢰즈의 차이생성론에 근거한 무용교사 교육의 실천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장수혜, 장웅조(2026). 말(言) 너머의 몸짓: 포용적 예술 창작 과정에서 예술기반연구(ABR)의 함의. **질적탐구학회**, 12(1), 63-87.
- 전선우, 김선아(2025). 예술적 자기 탐색: 미술치료사의 감정 소진에 관한 자전적 예술 기반 연구. **조형교육**, 95, 395-423.
- 정희정(2025). 장애무용 작품 <모모댄스> 안무를 위한 예술기반 실험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42(2), 91-107.
- 조재식, 김영천, & 허창수(2006). 교육학/교육과정 연구에서 질적 연구자가 고려해야하는 타당도 이슈들: 그 다양한 접근들의 이해. **교육과정연구**, 24(1), 61-96.
- 최성호, 김영천(2017). 질적자료분석 방법으로서 영역 분석: 그 다양한 방법들의 탐색. **질적탐구학회**, 3(1), 133-155.
- 하일(2025). 예술기반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적 쟁점: 만화소설 형식의 논문 작성을 중심으로. **질적탐구학회**, 11(3), 1-28.
- 한혜리(2019). 무용 경험의 지식 확장 구조.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0(4), 115-127.
- 홍혜전(2025). 체화인지 관점에서 본 학교무용교육의 의미와 방향. **예술교육연구**, 23(4), 247-264.
- Bagley, C., & Cancienne, M. B. (2001). Educational research and intertextual forms of (re)presentation: The case for dancing the data. **Qualitative Inquiry**, 7(2), 221-237. <https://doi.org/10.1177/107780040100700205>
- Boyd, C., & Barry, K. (2024). Arts-based research and the performative paradigm. **Methods in Psychology**, 10, 100143. <https://doi.org/10.1016/j.metip.2024.100143>
- Cho, J., & Trent, A. (2006).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revisited. **Qualitative Research**, 6(3), 319-340. <https://doi.org/10.1177/1468794106065006>
- Dumaresq, E., & McFerran, K. S. (2024). A critical and interpretive synthesis of arts-based methods used by dance therapy researchers: A perspective from the creative arts therapies. **Methods in Psychology**, 10, 100152. <https://doi.org/10.1016/j.metip.2024.100152>
- Eisner, E. W. (1997). The promise and perils of alternative forms of data representation. **Educational Researcher**, 26(6), 4-10. <https://doi.org/10.3102/0013189X026006004>

- Eisner, E. W. (2008). Art and knowledge. In J. G. Knowles & A. L. Cole (Eds.), *Handbook of the arts in qualitative research* (pp. 3-12). Sage.
- Elo, S., & Kyngä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569.x>
- Finlay, L. (2002). Outing the researcher: The provenance, process, and practice of reflexivit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2(4), 531-545. <https://doi.org/10.1177/104973202129120052>
- Finley, S. (2005). Arts-based inquiry: Performing revolutionary pedagogy.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681-694). Sage.
- Finley, S. (2008). Arts-based research. In J. G. Knowles & A. L. Cole (Eds.), *Handbook of the arts in qualitative research* (pp. 71-81). Sage.
- Frayling, C. (1994). Research in art and design. *Royal College of Art Research Papers*, 1(1), 1-5.
- Fullagar, S. (2017). Post-qualitative inquiry and the new materialist turn: Implications for sport, health and physical cultur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in Sport, Exercise and Health*, 9(2), 247-257. <https://doi.org/10.1080/2159676X.2016.1273896>
- Green, J. (2015). Somatic sensitivity and reflexivity as validity tools in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6(3), 253-271. <https://doi.org/10.1080/14647893.2015.1054848>
- Hsieh, H.-F., &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1277-1288. <https://doi.org/10.1177/1049732305276687>
- Lather, P. (1986). Issues of validity in openly ideological research: Between a rock and a soft place. *Interchange*, 17(4), 63-84. <https://doi.org/10.1007/BF01807017>
- Lather, P., & St. Pierre, E. A. (2013). Post-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26(6), 629-633. <https://doi.org/10.1080/09518398.2013.788752>
- Pentassuglia, M. (2017). “The Art(ist) is present”: Arts-based research perspective in educational research. *Cogent Education*, 4(1), 1301011. <https://doi.org/10.1080/2331186X.2017.1301011>
- Phoenix, C., & Chamberlain, K. (2025). Arts-based research: Attending to methods. *Methods in Psychology*, 12, 100179. <https://doi.org/10.1016/j.metip.2025.100179>
- Pillow, W. S. (2003). Confession, catharsis, or cure? Rethinking the uses of reflexivity as methodological power.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6(2), 175-196. <https://doi.org/10.1080/0951839032000060635>
- Richardson, L. (2000). Writing: A method of inquiry.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pp. 923-948). Sage.
- Snowber, C. (2012). Dance as a way of knowing.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34, 53-60. <https://doi.org/10.1002/ace.20021>
- St. Pierre, E. A. (2011). Post qualitative research: The critique and the coming after.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pp. 611-625). Sage.

- Wilson, M. (2002). Six views of embodied cognition.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9(4), 625-636. <https://doi.org/10.3758/BF03196322>
- Wilson, L., & Moffett, A.-T. (2017). Building bridges for dance through arts-based research.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8(2), 135-149. <https://doi.org/10.1080/14647893.2017.1330325>

논문투고일 2026. 05. 15.
심사일 2026. 05. 17.
심사완료일 2026. 06. 15.

Arts-Based Research (ABR) in Dance Education: A Methodological Exploration

Lee, Jae-jung

Assistant Profess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arts-based research (ABR) in dance education and to identify its major modes of inquir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applie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related to arts-based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dance education, and performance-based inquiry. The findings revealed that ABR in dance education is characterized by six methodological features: emergence, embodiment, performativity, becoming, relationality, and reflexivity. These characteristics indicate a shift from language-centered representation toward embodied and performative forms of knowledge generation. In addition, three major modes of inquiry were identified: creation-process-centered inquiry, performance-centered inquiry, and narrative-based inquiry. The study suggests that ABR provides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exploring embodied, relational, and performative experiences in dance education and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in the field.

Keywords: Dance Education(무용교육), Arts-Based Research(예술기반연구),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질적연구방법론), Dance Research Methodology(무용연구방법론), Dance Education Research(무용교육연구)